

이 대통령, 이시바 전 총리 만나 ‘한일 협력 강화’ 공감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차 방한
 이 대통령, 이시바 전 총리 만나 ‘한일 협력 강화’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총리께서 재임 중일 때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고, 그 후로 한일 협력도 상당히 잘 되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오찬을 갖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일본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두 사람은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최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총리께서 매우 넓은 시야로 국제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재임 중)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일한관계 발전이었다”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양자) 관계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오찬장에 놓인 꽃을 들고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해 이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임자인 다카이치 총리와도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다”면서 “작년은 일본과 한국 간에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는데

정치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작년 한일 정상 간 서클외교를 복원한 이후 한일관계 발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시바 전 총리가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또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도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정책연구

원의 연례 포럼 ‘아산 플래넘 2026’ 참석을 계기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9월30일 부산 해운대에서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만나 서클외교 복원에 뜻을 모았다.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한편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특정 국가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따라서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란발 중동 위기 대응과 관련해 “자위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안보 조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이 유엔에서 대응 논의를 함께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jy@metroseoul.co.kr



metro

“김부겸은 제2의 노무현”... 민주당, 대구 찾아 표심 구애

민주당 최고위, 대구 찾아 후보 지원
 ‘미래모빌리티 산업 도시’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시장 후보로 나선 대구를 찾아 “김 후보는 대구 선거를 이길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제2의 노무현”이라며 대구·경북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인터볼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의 희망찬 봄을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부겸 전 총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대구 선거를 이길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우왕좌왕, 갈팡질팡 또 말을 이었다 저했다 하는 바람에 대구·경북 통합이 멈춰 섰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힘을 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8일 오전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민생현장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쳐 대구·경북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최고위를 마치기 직전 정 대표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김부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았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종로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부산 가시밭길에 가서 도전했듯 김 후보도 노

전 대통령처럼 군포 꽃길을 마다하고 이곳 대구 가시밭길에 내려왔으니 김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닮았고 김 후보는 제2의 노무현”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후보가 꽃길을 마다하고 가시밭길을 왔는데 그 가시밭길이 다시 꽃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후보는 “그동안 대구 시민이 너무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다”며 “많은 대구 시민이 저를 보고 대구가 다시 살아날 길을 열어 달라 하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금 대구가 오랫동안 멈춰있어서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예산과 정책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구에 중요한 약속을 했다”며 “이에 화답하듯 정 대표께서도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 센터장’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저는 이 보증 수표를 믿고 대구를 앞으로 첨단 기술이 융합된 메디시티, 인공지능(AI)로봇 수도,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선도 도시를 대구 미래 비전으로 만들어 그 약속을 시민의 삶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추경 26조 → 30조로 상임위 심사서 증액

국회 상임위원회 중동 사태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심사과정에서 3조5000억원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될 경우 추경 규모는 총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상임위 10곳 중 9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추경 증액은 상임위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9739억46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6099억6000만원 ▲보건복지위원회 3445억8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72억5500만원 ▲국토교통위원회 1985억38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733억6500만원 ▲교육위원회 907억6100만원 등이다.

상임위별로 보면 가장 많이 증액 금액이 가장 큰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농어촌 유통비·전기요금·사료 지원 등 명목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까이 증액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8048억5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다만, 고유가 피해지원 사업 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안과, 고유가 피해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7398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모두 예결위 심사로 올렸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금액은 3조4832억원 규모다. 산재위에서도 증액의 결될 경우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컷오프’ 주호영 “향고심 후 거취 결정”

“장동혁 대표, 결단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사진)은 8일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자신의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향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향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장동혁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지난 3일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줄이를 공천 소송을 우려해 ‘정당 자율성’이라는 장막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치가 제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당의 병폐가 당원권과 시민의 선택권을 짓밟는 데도 사법부까지 외면한다면 ‘공천 민주주의’는 누가 지키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공천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윤어게인’을 원치 않는 데도 분명한 태도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살신성인과 선당후사를 말하려

면 장 대표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저는 그런 장동혁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분명히 요구한다. 장 대표는 결단하라. 더 늦기 전에 책임지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다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버티기가 아니라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